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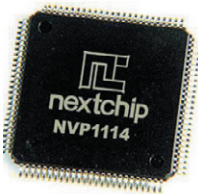
코아로직, 중국시장 공략 본격화

코아로직(대표 황기수 www.corelogic.co.kr)은 중국시장의 적극적인 사업활동을 위해 상하이에 솔루션 센터를 구축했다. 코아로직은 국내 고객 중심의 비즈니스를 해외고객으로 다변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 거점 시장 중의 하나가 바로 중국이라는 판단하에, 그 동안 쌓아온 모바일 SoC(System on Chip)기술을 이용하여 핸드셋 뿐만 아니라 모바일 디지털 컨슈머 비즈니스의 중국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해 왔다.

코아로직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중국 로컬 디자인 하우스와 브랜드 시장이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성장중인 회색시장(Grey Market)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코아로직은 중국시장에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여 중국 공략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로우엔드(Low-end) 멀티미디어 시장은 시장 자체가 사라지고 있으며, 남은 시장에서 중국 저가 솔루션과 심각한 가격 경쟁이 필요하며, 미드엔드(Mid-end), 하이엔드(High-end) 멀티미디어 시장은 규모는 크지만 중국기업이 주도하는 상황이다.

이에 코아로직은 단기적으로는 이 시장을 주도하는 중국 기업들이 지원하기 어려운 고기능 멀티미디어로 차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장규모와 사업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쟁력 있는 터진 플랫폼 개발과, 솔루션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코아로직은 중국 상하이 솔루션 센터를 통해 중국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전용 플랫폼을 중국에서 직접 기획, 개발, 안정화하여 중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 할 것이다.

넥스트칩, 4채널 비디오 디코더 신제품 출시



넥스트칩(대표 김경수 www.nextchip.com)은 4채널 오디오 코덱, 1채널 비디오 인코더를 내장한 4채널 비디오 디코더 'NVP1114'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DVR용 비디오 디코더 경쟁사인 미국 테크웰 제품에 비해 압축효율이 3~4배 높고 음질 수준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기존 제품 대비 화질이 향상된 것도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넥스트칩은 DVR용 비디오 디코더 시장 점유율 확대를 예상하고 있다. 넥스트칩 관계자는 "DVR시스템 제조사들이 NVP1114를 이용하면 DVR 회로설계를 간소화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씨앤에스테크놀로지, KT 인터넷전화기에 핵심칩 탑재

씨앤에스테크놀로지(대표 서승모 www.cnstech.co.kr)의 인터넷전화 전용 핵심칩이 KT용 인터넷전화기에 탑재됐다. 씨앤에스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인터넷전화 전용 핵심 칩인 '크로노스'와 관련 솔루션을 적용해서 개발된 인터넷전화기가 최근 KT의 까다로운 사업자 성능 테스트(BMT)

를 통과해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씨앤에스의 칩과 솔루션이 탑재된 제품은 KT가 인터넷전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개발된 가정용 무선 인터넷전화기인 'Ann-IP 폰'이다. 씨앤에스는 이번 BMT에서 외국 대형 반도체 업체를 제치고 국내 최대 통신사업자의 테스트를 유일하게 통과함에 따라 인터넷전화용 칩 매출 증가가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승모 씨앤에스 사장은 "국내 최대 통신사업자인 KT용 단말기에 유일하게 적용되는 등 인터넷전화 사업이 본격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며 "번호이동제와 더불어 일반 전화의 인터넷전화로의 전환 추세에 따라 인터넷전화 관련 분야의 매출 확대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엠텍비전, 휴대폰용 칩 공급량 3억개 돌파

엠텍비전(대표 이성민 www.mtekvision.com)은 카메라제어 프로세서(CCP) 등 자사 휴대폰용 칩 누적 공급량이 3억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2억개 돌파 이후 1년여 만의 일이다. 회사 측은 3억개의 칩 중 텐 밀리언셀러 제품은 총 7개로, CCP가 6종과 카메라신호 프로세서(CSP) 1종이 주인공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제품별 비중으로는 CCP가 74%, 카메라신호 프로세서(CSP)가 13%, 모바일멀티미디어플랫폼(MMP)이 13%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성민 엠텍비전 사장은 "해외에서 베이스밴드를 다루는 칩도 이 같은 기록은 흔치 않다"면서 "3억개라는 공급량은 한국 팹리스 업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강조했다.

라닉스, DVR 코덱칩 세계 첫 개발

팹리스 업체인 라닉스(대표 최승욱 www.ranix.co.kr)가 영상압축률이 우수한 H.264 압축방식을 사용하면서 D1(720x480)급 4개 채널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압축할 수 있는 DVR용 코덱칩을 세계 최초로 개발, DVR용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에 H.264 압축방식 D1급 1개 채널을 실시간으로 압축하는 칩은 있었지만 4개 채널을 실시간으로 압축할 수 있는 칩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닉스는 주요 DVR 업체인 아구스와 2년 8개월에 걸쳐 공동개발하고 최근 미국·대만·영국 등에서 열린 국제전시회에 이 칩을 적용한 DVR을 선보여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공급 요청을 받고 있다.

최승욱 사장은 "현재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MPEG4 D1급 1채널 압축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DVR 시장에 압축률이 뛰어난 H.264 압축방식을 적용하고, D1급 4채널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압축하는 본 제품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닉스는 올해에는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해외 시장 공략에도 나서 DVR 코덱칩 부문에서 연간 50~60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라닉스는 인터페이스를 다양화하고 멀티채널 처리기능을 보완해 고성능 DVR 시스템을 저가로 개발할 수 있는 차기 DVR 코덱칩을 4분기 안에 출시할 예정이다.

○ 펜타마이크로, 영상처리용 SoC 개발

펜타마이크로(대표 김인천 www.pentamicro.com)가 고성능 CCD 카메라용 영상처리 SoC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CCTV 카메라 시장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영상처리 칩 셋을 국산화하고 네트워크 응용 기술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향후 IP 카메라를 위한 멀티미디어 칩을 포함한 SoC 개발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 애트랩, Optical Finger Navigation Module 첫 출하

애트랩(대표 이방원 www.atlab.co.kr)의 Optical Finger Navigation 기술로 개발한 Finger Navigation Module인 FO1W-12C가 대만 ITRON사에 첫 출하되었다. 최신의 광학 및 Navigation 기술을 이용하여 손가락의 움직임을 2D Navigation으로 신호 처리를 한 후 positioning을 하는 입력 장치인 Finger Navigation Module은 초박형의 Housing 내에 렌즈, LED, Sensor를 내장하고 있어 외부의 먼지나 습기로부터 안전하며 Optical Noise Filter가 내장되어 있어 외부의 광학적 잡음에 대한 내성에도 강하다.

특히 이번에 출하된 FO1W-12C Module은 Presenter와 Mouse의 기능을 모두 구현할 수 있고, 12C의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어 PDA나 핸드폰 등 휴대용 기기에 적합한 모델이다.

ITRON사의 Presenter에 적용된 것을 시작으로 애트랩의 Finger Navigation Module은 앞으로 IPTV용 리모콘, 마우스 겸용 Presenter, 슬림 광마우스 등에 적용되어 판매량 이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애트랩은 (주)모비솔과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다이나릿시스템, 해외시장 공략 박차

반도체 통합 설계 솔루션 업체인 다이나릿시스템(대표 김종석 www.dynalith.com)이 최근 인도에 대리점을 개설하는 등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다. 다이나릿시스템은 인도 토러스 하드소프트 솔루션사와 벵갈로에서 자사의 반도체 통합 설계 개발 및 검증환경 제품인 아이프루브 및 인튜이션 판매를 위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합 솔루션을 공급하는 IT솔루션 업체인 토러스는 앞으로 인도와 스리랑카 지역에서 다이나릿시스템의 제품 판매와 마케팅을 담당하게 된다. 다이나릿시스템의 이번 대리점 계약 체결은 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반도체 설계 검증업체가 인도 벵갈로 지역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이나릿시스템은 또 대용량 필드프로그램블게이트어레이(FPGA)를 4개까지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개발 및 검증 툴인 아이넥스

트(iNEXT)를 개발, 지난달 초 미국 애너하임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EDA관련 전시회인 DAC 2008에서 이를 선보였다.

○ 선인테크놀로지, 비아이씨앤에스와 제휴

반도체 유통·솔루션 전문기업 선인테크놀로지(대표 박규홍 www.sunintech.com)는 오라클의 메모리 데이터베이스(DB) 솔루션 '타임스텐(TimesTen)' 과 고성능 데이터 웨어하우스(DW, 데이터 저장) 솔루션 영업을 위해 비아이씨앤에스(대표 박주성)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다. 타임스텐은 최근 오라클에 흡수합병됐으며 비아이씨앤에스는 그간 타임스텐의 총판으로 국내 영업을 진행해 왔다.

선인테크놀로지에 따르면 타임스텐 솔루션은 메모리 상주 DB로 기존 오라클 DB의 일기·쓰기 처리속도를 10배까지 향상 시킬 수 있는 신개념 DB솔루션으로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ISP 사업자, 모바일 인터넷 사업자 등에 최적화됐다. 윤광진 선인테크놀로지 상무는 "타임스텐과 최신의 DW 솔루션으로 실시간(Real Time) DB시장의 선두주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 MDS테크놀로지, 윈도우 임베디드 OS 개발 툴 킷 프로모션

MDS테크놀로지(대표 이상헌, 나기철 www.mdstec.com)가 윈도우 임베디드 OS 개발 툴 킷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지난해 디에스티(DST) 인수합병으로 국내 및 동남아시아, 인도, 오세아니아 지역 윈도우 임베디드 OS 사업권을 획득하게 된 MDS테크놀로지는 홈페이지를 리뉴얼하고 본격적인 윈도우 임베디드 OS 개발 툴 킷 프로모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MDS테크놀로지는 윈도우 임베디드 CE 또는 윈도우 XP 임베디드 개발 툴킷을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대용량 외장하드 또는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를 증정한다. 윈도우 임베디드 OS는 내비게이션, PMP, IP셋톱박스 및 ATM, DVR, 산업용기기 등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운영체제로, 고객사는 개발 디바이스에 맞게 운영체제를 최적화하여 개발이 가능하며, 윈도우 기반의 입증된 성능과 안정성, 15년의 긴 제품공급, 다국어 지원 등이 주요 특징이다.

나기철 MDS테크놀로지 공동 대표는 "고객의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에 맞는 최적의 OS를 제공하고, 개발에서 제품양산에 필요한 최적의 솔루션 및 신속한 기술서비스를 공급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자료제공]

- [1] 전자신문 www.etnews.co.kr
- [2] IT SoC 산업동향, 2008. 5